

장중편동화문학창작에서의 감정조직

전 충 일

장중편동화문학은 자라나는 우리의 어린이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훌륭히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특색있는 문학형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장중편동화문학창작에 창작가들이 적극 뛰어들어 창작전투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이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지난 기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74(1985)년 12월 9일과 주체82(1993)년 1월 6일 창작정형을 보고받으시고 평가해주신 작품들을 비롯하여 장중편동화문학분야에서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명작동화문학들이 수많이 창작되었다.

오늘도 우리 동화작가들은 현실발전과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장중편동화문학창작을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중요한 문학형태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면모를 뚜렷이 드러내고있다.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장중편동화문학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자면 여러가지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제기된다.

그중에서도 감정조직을 잘하는 문제는 장중편동화문학창작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은 작품의 형상성을 높이는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같은 작품도 감정조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지며 형상의 질이 좌우된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5권 159페이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작품창작에서 감정조직을 잘하여야 형상의 질이 높아지게 되며 독자들에게 지울수 없는 정서적여운을 안겨줄수 있다.

더우기 장중편동화문학은 생활반영의 폭이 크고 규모가 방대한데 맞게 감정조직을 깊이있게 잘하여야 작품의 형상성을 높이고 정서적감흥을 크게 할수 있는것이다.

장중편동화문학창작에서는 수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폭넓은 생활을 통해서 깊이 있고 풍부한 감정정서적체험을 할수 있게 감정조직을 잘해나가야 한다.

장중편동화문학에서는 인물들의 감정정서적체험이 깊이있게 그리고 인물들이 체험하는 감정도 매우 다양하여야 하는것만큼 감정조직을 잘하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그러면 장중편동화문학창작에서 감정조직을 잘해나가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것이다.

장중편동화문학창작에서 감정조직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감정조직과 사건조직을 일치시켜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감정선은 사건선과 별개로 존재할수 없으며 따라서 사건선에 기초하여 생겨나고 호상작용하며 융합되게 된다.

장중편동화문학에서는 동화적사건이 폭이 크고 이야기가 여러 갈래로 흐르는것만큼

그에 맞게 감정조직을 일치시키는것이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감정조직을 사건조직과 일치시킨다는것은 곧 사건의 기승전결과정과 감정의 발생, 축적, 폭발, 결속과정을 일치시킨다는것을 말한다.

먼저 작품의 기본사건의 발생과 감정의 발생을 잘 일치시켜야 감정흐름의 실머리에서부터 감정의 종류와 색깔을 옹계 잡아쥐고 전반적인 감정흐름을 방향지어줄수 있다.

그러므로 창작실천에서는 작품의 기본사건선을 옹계 찾아쥐고 기본사건의 발생에 감정의 발생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정의 축적과정도 사건의 발전과정과 일치시켜야 한다.

감정의 축적과정도 어디까지나 량적인 축적과정인것만큼 장중편동화문학창작에서는 사건발전과정을 따라가며 굴곡과 신축을 통하여 긴장과 완화를 거듭하면서 감정축적을 깊이 있게 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감정축적에서는 사건이 발전하는데 맞게 감정을 더욱더 승화시켜나가면서 앞으로 있게 될 감정의 폭발과 론리적으로 잘 련결되게 하여야 한다.

감정의 폭발은 해당한 정황과 계기가 조성되어야만 생활의 론리, 감정의 론리에 맞게 일어날수 있다.

그러므로 감정의 폭발을 위하여 감정세계를 뚜렷하게 드러낼수 있는 실제적생활바탕인 정황과 함께 구체적인 생활적계기를 잘 마련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감정의 결속 역시 기본사건과 일치되어야 한다.

감정의 결속은 감정의 흐름을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단계로서 형상적과제를 더욱 뚜렷이 확인하는 마당이다.

결속에서 주어지는 여운은 사람들을 깊은 정서적사색으로 이끌어가며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것으로 하여 그것이 오래 가도록 지속적인것으로 이어질수 있게 되여야 한다.

중편동화문학 《매미의 노래》에서는 고향을 위해 노래하다가 최후를 마친 참매미의 손에서 활이 스르르 풀려나오고 그 활이 저절로 해금줄을 그으며 끊어졌던 노래소리가 다시금 울려나왔다는것과 그것으로 하여 달꽃향기는 더욱 짙게 풍겼다는것, 그후 해마다 꽃피는철이면 참매미의 해금에서 정다운 노래가 울린다는것으로 감정의 결속을 주고있다.

결과 작품의 기본사건이 결속되고 마지막책장을 덮은 후에도 주인공의 노래소리가 주는 정서적여운은 오래도록 독자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것이다.

이것은 같은 작품도 감정조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지며 형상의 질이 좌우된다는 주체적문예리론의 정당성을 다시금 실증해주는 실례라고 말할수 있다.

감정조직과 사건조직을 일치시켜 훌륭한 동화적형상을 창조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것은 인물의 운명선을 따라가면서 감정조직을 해나가는것이다.

그러자면 인물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서 정서상태를 섬세하게 드러내면서 감정의 흐름을 옹계 잡아나가야 한다.

많은 장중편동화작품들에서 인물의 운명선을 보여줌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절박한 정황을 제시하고있다.

시간적으로 절박한 정황을 제시하는 수법은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정해진 시일안에 주인공의 성격적특질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 수법은 인물의 운명선을 뚜

렛이 부각시키는것으로 하여 등장인물들뿐아니라 독자들도 손에 땀을 쥐고 결말을 기다리도록 하는데서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중편동화문학창작에서는 그 기간을 대체로 열흘 또는 보름으로 잡을수 있다.

중편동화문학 《매미의 노래》에서 땅우로 나온 매미가 열흘만에 죽게 되는것으로 그 한계를 주었다면 중편동화문학 《옥피리》에서도 불여우의 잠통소에 의하여 잠든 짐승들이 열흘안에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것으로 꼭같이 열흘을 기간으로 정하고있다.

이밖에도 장중편동화문학작품들에는 한계점을 명백히 찍지 않았을뿐이지 내용상 시간적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인물의 운명선을 따라가면서 감정조직을 잘해나가자면 그들의 운명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대목들을 잘 틀어쥐고 감정축적을 잘해나가야 한다.

실례로 중편동화문학 《해우와 갈매》는 굶등어로 된 해우가 물고기옷을 벗고 다시 사람으로 되는데 보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고있는데 이에 따르는 감정조직은 보름이라는 기일을 기점으로 하여 주인공 해우가 다시 사람으로 되어 정다운 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영원히 물고기가 되어버리느냐 하는데로 초점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시일이 지남에 따라 인물들의 감정과 독자들의 마음은 초조해지게 되며 흥미가 계속 오르기만 한다.

다져질대로 다져진 감정의 축적은 기일이 끝나는 시점에 이르러 더는 견디내지 못할 정도에 이르게 되며 마침내는 폭발에로 이어지게 되는것이다.

이처럼 감정조직을 사건조직과 일치시켜 잘 조직하면 독자들이 동화적인물들과 하나의 사상감정으로 숨쉬며 인물들의 사상감정을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여 그 정서적여운이 깊이있게 될뿐아니라 나아가서 작품의 구성도 보다 짜이고 형상성은 그만큼 더욱 높아지게 된다.

장중편동화문학창작에서 감정조직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기본감정선에 부차적인 감정선을 철저히 복종시켜나가야 한다.

어느 장중편소설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중편동화문학도 감정선의 갈래가 다양한것만큼 창작에서 기본감정선에 부차적인 사건선을 복종시키지 못하면 이야기의 중심이 살지 못할뿐아니라 등장인물들중에서 어느 한 인물의 감정선도 충분히 살려낼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감정의 흐름새에서도 조화가 이루어질수 없다.

그런것만큼 장중편동화문학창작에서도 인물들이 체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론리적흐름에 맞게 기본감정선과 부차적인 감정선을 옹골케 갈라보고 기본감정선을 잘 살려나가야 한다.

기본감정선은 역시 주인공의 감정선이며 부차적인 감정선은 주인공을 제외한 인물들의 감정선이다.

부차적인 감정선은 기본감정선에서 파생되어 흘러가다가 다시 기본감정선에 합류되는 지선이라고 볼수 있다.

부차적인 감정선은 기본감정선이 맡은 감정의 흐름에서 한갈래씩 말아가지고 끌고나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감정선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관계에 있다.

반면에 기본감정선은 감정조직의 전반적인 형태를 짜나가는데서 중심위치에 놓이면서 여러 갈래의 부차적인 감정선에 의하여 보강되고 풍부화되게 된다.

실례로 중편동화문학 《아름다운 바다》에서는 도래마을을 해치려는 왕문어를 죽치고 그

만 눈이 멀게 된 금도미에 대한 동정으로부터 발생한 감정이 위협에 처한 그를 구원해주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돌보아주는 주인공 날치의 뜨거운 정성, 한편 남에게 얹혀사는 미안한 감을 이길수 없어 집을 나간 금도미때문에 갈마드는 걱정과 안타까움, 금도미의 눈을 띄워주자면 마술경이 있어야 하고 그러자면 무서운 홍피바다속으로 들어가야 하는것으로 해서 주인공이 겪게 되는 심리적고민 등으로 감정조직이 면밀하게 되어있다.

주인공 날치의 감정선은 앞뭇 보는 눈먼 금도미를 위해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고결한 감정세계로 그 기본흐름이 승화된다. 다시말해서 어린 금도미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성심성의로 돌보아주고 마침내 자기의 눈까지 바치게 되는 감정축적과정이 깊이있게 주어진데 기초하여 마침내 감정폭발이 일어난다.

이 작품에서 기본감정선이 주인공 날치의 감정선이라면 부차적인 감정선은 금도미와 날치, 승어, 거부기할아버지 그리고 대구와 련어 등 인물들의 다양한 감정선이다.

여기서 기본감정선은 형상적화폭의 중심에서 부차적인 감정선들과 결합하여 더욱 풍부화되면서 감정조직을 깊이있게 하는데 이바지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장중편동화문학창작에서 감정조직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감정조직의 여러가지 수법들을 옹게 활용하여야 한다.

우선 동화적갈등에 의한 감정축적과 폭발을 잘 조직하여야 한다.

감정조직은 사건조직과 일치될뿐아니라 갈등조직과도 일치되어야 한다.

동화적갈등이 첨예하면 할수록 인물들의 감정체험도 그만큼 예리하게 될것이며 폭발역시 격렬하게 될것이다. 즉 첨예한 갈등을 설정하고 그것을 예리하게 심화시키는 수법으로 감정축적을 깊이있게 하여 폭발을 강하게 할수 있는것이다.

장중편동화문학창작에서는 대체로 동화적갈등을 예리화시키는 수법으로 감정조직을 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을 첨예하고도 예리하게 조성하고 여기에 인물들의 감정선을 밀착시키는 수법으로 감정조직을 해나가는것은 장중편동화문학창작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된다.

또한 오해선을 잘 리용하여야 한다.

동화적갈등을 첨예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심화시켜나가는 수법으로 작품의 견인력을 높이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갈등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적대되는 세력사이에 격렬한 감정마찰이 없는 작품들의 경우에는 갈등을 견인력으로 삼을수 없게 된다.

이러한 작품을 창작할 때 흔히 리용할수 있는것이 오해선에 의한 감정조직이다.

장편동화문학 《〈이상한 나라〉에 온 세사람》의 감정조직을 보면 이 작품에는 사상적으로 대립되는 판이한 두 제도, 두 생활을 그리고있음으로 하여 생활의 본질적의미에서는 갈등이 있지만 인물들간의 직접적인 대결이나 표면상의 감정마찰은 찾아볼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흥미있게 읽혀지는것은 바로 감정조직에서 오해선을 잘 리용하였기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인물들의 시점은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볼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눈으로 본 《별난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별난 나라》사람들의 눈으로 본 우리 나라이다.

먼저 할아버지와 복동이의 시점에서 《별난 나라》사람들의 생활이 묘사되고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사람들의 견지에서는 선뜻 리해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어린 복동이가 그 이

야기를 듣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수 없다.》고 단정하는것은 십분 타당한것이다.

같은 식으로 작품의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별난 나라》 사람들의 시점에서 우리 나라를 자기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나라》라고 여기는것으로써 감정조직을 하였다.

이렇게 매개 나라 사람들의 견지에서 자기들의 생활을 볼 때는 자연스럽고 레사롭지만 그 시점을 바꾸어 서로 다른 나라를 보게 한다면 모든것이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것이다.

서로 다른 제도 사람들의 눈으로 상반되는 생활을 보도록 한것, 바로 여기에 오해의 기초가 있는것이다.

따라서 작품에 오해선을 자연스럽게 깔아줄수 있었으며 작품의 전과정을 오해와 착각에 의거한 감정선으로 끌고나가면서 해학적인 웃음과 극적기대감을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오해선을 리용하는것은 이처럼 동화적갈등을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조직을 잘하는 데서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역감정을 리용한 감정조직도 잘하여야 한다.

역감정을 리용하는 감정조직수법은 서로 대조되는 감정세계를 통하여 인물들의 감정 체험을 보다 강렬하게 하는 형상수법이다.

장편동화문학 《사랑의 집》에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입소식과 관련한 초청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외국어린이가 도착하지 않아 생기게 되는 의혹의 감정, 아이들을 천시하는 사람 못살 자본주의세계의 여러 도시들과 해적들에 의하여 생긴 《오늘의 집》에서 불행한 아이들이 상시적으로 시달리는 압박감, 망망한 바다우에서 해적들의 검질긴 추격을 당하며 느끼는 공포감과 아이들을 제일로 떠받드는 세상에서 받아안게 되는 환희의 격정뿐아니라 아이들을 지긋게 따라다니며 못살게 굴던 해적들이 《사랑의 집》에 기여들었다가 전자오락장의 산 목표물이 되어 하루에도 몇십몇백번씩 뒤흔리는 물결을 보는 통쾌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생활화폭에 의거하여 감정조직을 깊이있게 하였다.

이것을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아오는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들에 대한 흥미있는 이야기줄거리를 따라서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환희와 절망, 절망과 환희를 자주 엇바꾸어줌으로써 역감정을 리용한 감정축적을 깊이있게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작품에서 해적놈들의 음모에 의하여 《오늘의 집》으로 홀리워간 가스팔을 비롯한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부르며 질탕치듯이 놀아댈 때 갑자기 집이 무너져내리면서 아이들은 그 밑에 깔리게 된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무시무시한 해적놈들에게 고스란히 붙잡혀 노예의 비참한 운명에 처한다.

뿐만아니라 뒤에서 해적선이 추격해오는데 아이들이 탄 배가 뜻밖에 멈춰서는가 하면 놈들에게 거의 잡히게 된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세쌍둥이뚱배에 의하여 구원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편동화문학창작에서 감정조직을 깊이있으면서도 치밀하게 하는데 역감정을 잘 리용하고있는 실례라고 말할수 있다.

중편동화문학 《술골동산의 세동무》에서 오목한 모래고깔집을 보고 놀음놀이로 여기고 미끄러져들어갔다가 만만이한테 붙들려 경찰번 하며 역시 같은식으로 방심하고있다가 무

당벌레의 깍대기를 쓴 노린쟁이와 끈끈이주걱에게 혼나는것 등 역시 역감정으로 감정조직을 해나간 실례이다.

특히 새돌이가 동무들과 헤어져 혼자서 떠돌아다니는 과정에 반디네 집에 찾아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물에 빠져죽을번 하는것이라든가 솜방망이털에게 태워달라고 조르다가 통을 맞는것, 누에의 은실을 타고 올라가 그의 집안에서 하루밤 자보려다가 헛물만 켜는것, 물매미의 의심을 받는것 등은 만족과 불만, 안도와 불안, 기대와 배반 등의 역감정을 리용하여 감정조직을 잘하였다.

장중편동화문학창작에서 감정조직을 잘하기 위한데는 이밖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창작가들은 장중편동화문학창작에서의 감정조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적방도에 대하여 계속 탐구하여 구현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명작동화들을 더 많이 내놓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장중편동화, 감정조직